

파리 인형박물관
Musée de la Poupée

유 선 태 | 화가

인형의 역사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기원전 6 7세기로 보여지는 인형이 남아메리카의 페루, 미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인형의 완벽한 형태로 발굴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인형도 다른 공예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 고대의 인형들은 주로 얼굴의 형태가 섬세한 자수나 직조의 기법으로 되어있으며 몸통은 짚이나 직물을 봉제한 단순한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리고 의상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기하학적인 혹은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상징적 문양으로 짜여진 직물이 주조를 이룬다. 이같은 고대 인형들은 개인적으로 제작되어 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한 놀이

도구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요즈음에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우유까지 먹는 인형이 등장하고 있지만, 고대의 인형들에게서는 산업화되어 대량생산되는 이러한 완벽한 현대의 인형들에서 느낄 수 없는 서민들의 거칠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감이 담겨있고 소박한 그리고 때로는 풍부한 유머감각을 느끼게 하는 민속공예로서의 뛰어난 예술성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그러니 인형이라는 작은 오브제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인간들의 시대적 정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파리 중심부의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뒷편에 자리잡고 있는 인형박물관은 우리가 흔히



박물관 2전시장

상상하는 박물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 인형박물관은 전시장도 작고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해서 겨우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박물관이 처음으로 개관한 것은 1994년이다. 인형박물관이 마래 *Marais*라 불리우는, 파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이곳에 위치하게 된 것도 사실 과거에 인형을 제작하던 아틀리에나 공방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개관 당시 이 박물관에 소장된 인형은 500여점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귀도 오댕 *Guido Odin*, 사미 오댕 *Samy Odin* 부자가 기증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자 중에 아들인 사미 오댕이 지금 현재 이 박물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개인 소장의 인형들을 기증받거나 새로 구입한 인형들로 개관 당시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형을 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관장은 박물관장이 원하는 만큼의 다양한 인형들을 모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형은 그림이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골동품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간주되어 경매장에서 매우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2000년 동안의 인형의 역사를 한 눈에

인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형은 모두 1800년에서 2000년까지 불란서에서만 제작된 인형들이다. 박물관은 5개의 전시관과 파손된 인형을 복원시키는 작업실 그리고 기념품을 파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1 4 전시관은 박물관 소장의 인형들을 영구적으로 전시하며, 5전



1 박물관 1전시장입구 **2** 인형박물관 입구 **3** 박물관 1전시장입구 **4** 박물관 입구 내부

시관은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인형전시회가 수시로 열린다.

이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받는 첫인상이라고 한다면 마치 잔잔한 동화 세계에 들어서는 기분이라는 점이다. 크고 작은 귀여운 모습과 다양한 의상을 한 인형들이 마치 가족처럼 또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어린이들의 모임처럼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슈마허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인간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축소하여 만든 인형의 모습들에서 과거 어린시절의 회상이나 동심의 세계에 젖어들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는지.

제1전시관에는 1800 1880년대까지의 인형이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형들이란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아기나 어린이들의 모습을 가진 인형들을 쉽게 연상하지만, 그 시대의 인형들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성인들 혹은 부인이나 할머니의 모습이 주요 인물소재로 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인형은 단순히 유희 도구로서가 아닌 다양한 생활상을 반영하는 대상물이었던 것이다. 이들 인형은 대개 가방, 모자, 우산 등 여러 가지 사실적인 장식물을 동반하는데, 의상을 중심으로 이같은 장식이나 치장은 그 당시의 귀족이나 부유층뿐만 아니라 서민들 사회에서 유행했던 여성들의 풍속도를 축소된 상태의 인형에서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이채롭다. 제1전시관의 후반부에는 어린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Le bébé(아기)'라는 형식의 인형들이다. 어쨌든 이 당시의 인형은 과거 장인들에 의해서 제작되던

수공예적인 제작방식을 벗어나 산업적인 대량생산의 제작방식을 거쳐 제작되었고, 인형의 몸통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두상은 ' *biscuit* ' (도자기를 두 번 구워 표면이 윤기가 없게 하는 기법)라는 도자기로 이루어졌다.

제2전시관에는 1880 1920년대의 인형을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관의 인형들이 인형의 얼굴묘사나 성격표현보다는 장식과 치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제2전시관의 인형들은 좀더 섬세하고 다양한 얼굴 표정이 강조되어 있고 인형의 모습도 어린이에서 갓난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시기는 불란서 인형산업이 독일과 쌍벽을 이루며 가장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으며 부흥을 이루던 시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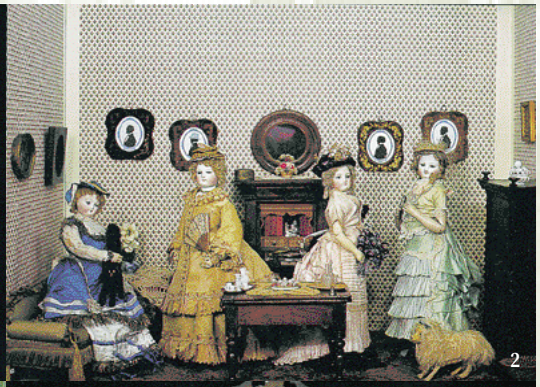
1885년에 제작된 인형

제3전시관에는 1920 1950년대까지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인형들은 그 이전 인형들의 명칭인 ' 뿌뻬 *Poupée* '로서가 아닌 ' 뿌뽕 *Poupon* '이라는 새로운 인형의 형태들이다. 이렇게 새롭게 인형의 명칭이 붙게된 이유는 과거의 인형들이 나무나 도자기같은 딱딱한 재료들로 몸체가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 뿌뽕은 그 당시 새롭게 발명된 셀룰로이드 *Celluloid*, 펄트 *Pelt*된 모직물 혹은 다양한 합성 종이재료로 몸체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머리카락이 없는 간난아이의 두상을 유난히 크게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형의 소재들

1950년대 이전까지의 인형이란 거의 인물 중심이 되어 표현되었지만, 1950년대 이후의 인형들은 인형(人形)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장난감 *Joute*의 개념에 접근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제4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인형들은 그 이전보다 더욱 발달된 합성재료의 도입으로 한층 더 생생한 인간의 모습을 희극적으로, 때로는 풍자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더불어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이 인형의 소재로 등장하게 되는데, 만화영화의 주인공 이외의 동물들도 인형의 표현소재가 되기도 한다. 제5전시관에 새롭게 전시된 인형들이 바로 이같이 만화영화의 주인공들로만 따로 모은 인형들이다. 1950년대 이후 제작된 이 인형들에게는 뿌에 *Pouet*라는 명칭이 주어지는데, 이 뿌에는 주로 라텍스나 합성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반 대중을 겨냥한 대량생산과 상업화된 인형의 모습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1


2


3


4


5


6

1 1877~1880년 사이에 제작된 인형 **2** 1860~1870년 사이에 제작된 인형들 **3** 1892년 *Bebe stinter*회사에서 제작된 파리인형
4 ' 쌍둥이 인형 '으로 1880~1885년 사이에 파리에서 제작된 인형 **5** 박물관 4전시장 **6** 박물관 3전시장





1, 2 박물관 1전시장 **3** 박물관 2전시장

1800년대는 인형제작이 산업화로 향한 첫발을 내디딘 시기이다. 그 이전의 인형들이란 주로 귀족이나 일부 부유층의 독점물이었으니, 인형의 변천사는 한편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블란서에서 번성했던 인형제작 산업도 이제는 사향길에 들어서서 1970년대까지 그나마 30여개를 헤아렸던 블란서 인형 사업체도 이제는 거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세계화라는 급류에 견디지 못한 인형산업도 이제 스페인이나 아시아로 모두 이주해버렸기 때문이다.

파리의 인형박물관과 같은 한적하면서도, 어린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박물관이나 공간이 우리에게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고 정신만 산란하게 하는 상업적인 놀이공원이나 만원버스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다 하루 해를 보내는 위락시설도 좋지만 조용히 무언가를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추상화의 대가 뿔 클레 *Paul Klée*는 자기 아이들에게 손수 바느질하여 인형을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사진으로 본 그가 만든 인형은 약간 서툴고 조잡하게 헝겁과 실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화가로서의 뽈 클레 이전에 아버지로서 뽈 클레의 다정다감함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서 가슴이 찡한 적이 있다. 바쁘고 각박한 생활이지만 우리의 아버지들로 한번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형가게에라도 들러서 아이들과의 작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비록 뽈 클레처럼 손수 인형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20년 가까이 파리에 살면서 이 글을 쓰기 위해 처음으로 인형박물관에 갔다온 사람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부끄러운 반성이라고 해야함이 차라리 옳을 듯 싶다.